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치유 제목 : 예수님의 치유 성경: 요한복음
 11장1-4절(치유의핵심,치유,병리,생리,신약성경,요한복음)

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11:1-4)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의사시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물론 우리 몸 안에는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으며, 정해진 생리규칙에 따라서 이 생명력을 가장 우수하게 유지하려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의학은 사실 이 완벽한 시스템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메카니즘을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관한 학문이다.

생리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생리 시스템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 스트레스, 갈등, 과중한 업무, 죄와 관련된 것들, 잘못된 생활습관들,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 과식, 음주, 흡연,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건강 위해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생리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교란시키고 또는 힘에 겨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게다가 우리는 양과 같아서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리 시스템의 메카니즘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의사는 많이 공부해서 누구보다 이 생리시스템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생리 시스템의 원 제작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생명력과 생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사실은 병리도 곧 생리의 또 다른 현상일 뿐이다.

물론 우리가 의학상식을 배우고 익히고, 또 필요할 때는 병원을 찾는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일관된 의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학 지식이 점점 쌓여져 가면서 인류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더 건강해지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여전히 건강과 치유를 위한 예수님의 도우심은 절실하다. 적게 아파도 힘든건 마찬가지다. 여전히 병원들은 만원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며, 암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들은 의사들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환자들도 각종 진단 장비들에게 시달리느라 힘겹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분명히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에 덜 걸리고, 더 건강하며, 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낫고, 병원에 가더라도 덜 고생하며, 수술을 받더라도 덜 위험하고, 약효도 빠르고 정확하고, 그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으며,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고, 혹시 죽게 되더라도 처절하지 않으며, 무의미하지 않으며, 천사가 나를 돕는다.

왜냐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섭섭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그 근원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신다.

예수님은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생활 습관의 질병까지도 고치신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감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태도를 고치시고, 우리의 습관을 고치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더 효과적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 펴시며, 인생의 방향을 고쳐 주시고, 인생길을 펴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겸손이다. 경건하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성껏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가족이 등장한다. 나сар가 병들었다. 병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았다. 아마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같아 보인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나사로 가족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친분이 매우 두터웠던 거 같다.

문맥을 보니 가장 핵심인물은 마리아다. 그녀는 얼핏 두 번이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처럼 나온다.(11장에는 전에 언젠가 한번, 12장은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물론 한번을 두 번으로 연거푸 언급할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2절은 마치 앞으로가 아닌,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적이 있었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앞으로 12장에서 (나사로 오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문맥적인 해석)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향, 나드향을 부을 것이다.

이때 가롯 사람 유다가 마리아의 이런 낭비적인 행각을 비판하였다는 기록은 마태, 마가, 요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만약 유다의 비판이 반복될 리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어떤 죄인 여자의 향유사건도 마리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1장에 소개된 향유 사건은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일 수 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는 이 집안의 영적 주체일 수 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가족과 예수님의 일행이 친분이 두터울 수 있다.

누가복음 7장에서의 여인은 죄인으로 소개되고, 그 많은 죄가 사함을 입었으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씻겨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언니 마르다와 나사로를 전도하였을 것이고, 나병환자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던지, 아니면 한 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거나 친척이었든지 하였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시 많은 나병환자들을 고치셨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분위기와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치유에는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 좋은 의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죄에 대한 회개, 회심, 뉘우침, 감격, 죄사함에 대한 감사, 관계의 회복, 전도, 간증, 기적, 하나님 나라의 회복등이 핵심가치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진심어린 회개는 온전히 겸손한 자에게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온전히 겸손하게 회개할 때, 뉘우침과 감격이 동반된다는 것, 그리고 뉘우침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만 관계의 회복과 전도와 간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억지 현상이 아니다.

나사로의 치유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다. 왜냐면 죽은자를 살리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죽은자를 살리는 사건을 위해서라면 나사로가 제격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사건을 알리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으며,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과 친밀하여 치유나 부활의 과정에서 거룩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았다.

그리고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그동안 나사로의 가족들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부활사건을 위한 적격의 가족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곧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일들을 예비하는 사건이다.

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고침에 관한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인류의 운명을 고치셨다. 죽을 수 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을 영생으로 고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운명을 고치신다. 마리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그의 삶을 정상으로 돌이키신 예수님, 그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예수님, 일찍 죽을 운명을 부활 소망의 본보기로 삼으신 예수님.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어떤 본보기로 삼으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복된 한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함으로.